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발언

[1.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손병두입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된 이후
우리는 바이러스와 공존하는 일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지만
철저한 방역조치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이 본격화되면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경제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4월 산업활동동향(통계청)을 살펴보면
소 산업생산지수가 4개월 연속 하락*하였으며
5월 수출동향(산업부)의 경우 23.7% 감소율**을 기록하였습니다.

* (1월) $\Delta 0.1\%$ → (2월) $\Delta 3.4\%$ → (3월) $\Delta 0.2\%$ → (4월) $\Delta 2.5\%$ / 전월대비
** (2월) $+3.6\%$ → (3월) $\Delta 1.4\%$ → (4월) $\Delta 25.1\%$ → (5월) $\Delta 23.7\%$ / 전년동기대비

한국은행 또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예측치를
대폭 하향 조정($2.1\% \rightarrow -0.2\%$)하여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 전시상황 속에서
우리에게는 스톡데일 패러독스*(Stockdale paradox)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 비관적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장래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 낙관주의를 뜻함

장기적으로는 성공한다는 희망을 가지되
냉혹한 현실을 인정하고
다같이 노력할 때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2-1 금융시장동향]

내수, 실물경제 등 경제 전반으로 충격이 가시화된 가운데 다행히도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은 각국 정부의 시장안정화 조치 노력 등에 힘입어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약 3개월만에(3.6일 종가 2,040) 2,000선을 회복하였고, 코스닥 지수는 코로나사태 이전의 연고점(2.17일 종가 692.6)을 갱신하였습니다.

회사채와 우량 CP, 단기사채는 순발행*으로 전환되었고, 금리의 변동폭**도 축소되면서 전반적인 자금조달 상황도 개선되었습니다.

* 순발행(조원): 회사채 (4월) +0.1 → (5월) +6.4, CP·단기사채(A1) (4월) △2.5 → (5월) +3.6

** CP(A1 91일물)-통안채 스프레드(bp): ('19년말) 35 (3월말) 144 (5.21) 124 (5.29) **101**

아울러, 3월부터 거품이 형성되었던 유가 관련 ETN도 유가 상승과 정부의 안정화조치(5.18)에 힘입어 점차 정상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원유레버리지ETN과리율(%): (5.15) 219.5 → (5.18) 113.8 → (5.28) 22.4

그러나, 아직 경계심을 낮추기에는 이릅니다.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글로벌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 외에도 홍콩을 둘러싼 미·중간 갈등, 신흥국 불안 등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수의 불안요인들은 아직 현재 진행형입니다.

따라서, 금융시장에 대한 지속적이고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금융부문의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도 경계심을 유지하면서, 적시에 시장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2 금융시장 안정화 대책 점검]

Financial Times(5.29일)에서는

미국 Fed(Federal reserve system)의 **코로나19 지원대책**들이
높지 않은 수준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지만
시장의 안전장치(back-stop)가 마련된 것만으로도
금융시장의 안정요인이 되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 Fed가 발표한 CPFF(Commercial Paper Funding), PDCF(Primary Dealer Credit) 등
11개 기구(facility) 중 5개 기구가 가동되어 한도대비 약 4%의 집행률 기록

우리나라의 경우도 금융권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채권시장안정펀드, 회사채 신속인수와 P-CBO 등을 통해
시장 안전장치를 적시에 마련함은 물론,
대책을 하나하나 실행해 나가면서
금융시장 안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회사채 차환발행이 어려운 기업을 지원하는

① 회사채 신속인수제의 경우

5월 28일 240억 규모의 첫 지원을 결정하였으며,

② 5월 29일에는 5,040억원 규모(22개 기업)의 **코로나19 P-CBO**와
4,247억원 규모(172개 기업)의 **주력산업 P-CBO** 발행을 통해
기업들의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였습니다.

③ 기간산업안정기금의 경우 1차 기금운용심의회를 개최(5.28일)하고
기금 운영방안 등을 논의하였으며,

④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매입기구(SPV)도
SPV 설립을 위한 작업반을 가동하며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련의 시장안정화 대책들을 통해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한 신속한 지원은 물론
기업이 일시적 유동성 부족으로 인해
경쟁력을 상실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3. 소상공인, 개인채무자 지원대책 점검]

지난 5.18일부터 지원 접수를 시작한
소상공인 2차 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현재(5.29일 기준) 총 3만 2백여건, 약 3천억원이 사전 접수되어
자금이 원활히 집행(8,796건, 879억원)되고 있습니다.

특히 2차 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약 1만 1천여건(40%)이 비대면 심사 시스템을 통해 접수되어
창구혼잡이나 대출 병목현상 없이
소상공인분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의 한도 잔여분과
1차 지원 프로그램 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시중은행으로 이관된 신청분도
조속히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부는 지난 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취약 개인채무자가 연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①개별 금융회사 차원의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특례와
②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특례 등 투트랙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소금융권과 함께 지난 4.29일부터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취약 개인채무자의 금융상황을 살펴보면,
정부지원금, 햇살론 등 정책서민대출* 신규자금 조달 등을 통해
아직까지는 연체자수**에 큰 변동이 없으며,

* 정책서민금융 '20년 공급목표 7조원 중 2조원 既공급(18.9만명, '20.1분기 기준)

** 단기연체(연체 5~89일) 및 금융채무불이행자(연체 90일 이상) 감소세 지속

신용회복위원회 및 법원(개인회생·파산)에 대한
채무조정 신청자수*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천명): ('19년 월평균)10 ('20.1월)10 (2월)10 (3월)10 (4월)11
법원 개인회생·파산(천명): ('19년 월평균)12 ('20.1월)10 (2월)11 (3월)12 (4월)11

이에 따라 ① 개별 금융회사 및 ② 신용회복위원회의 특례에 대한 신청*도 아직은 많지 않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 5,668명/716억원 (개별 금융회사 4,404명/244억원 + 신복위 1,264명/472억원 / 4.29~5.29)

그러나, 개인채무자의 연체가 발생하기까지는 시차가 존재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고, 앞으로 코로나19 피해가 얼마나 지속될지 모르기 때문에 경계심을 가지고 계속 면밀히 모니터링 해나가겠습니다.

[2-4. 금융혁신 등을 통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준비]

금융위원회는 제2회 코리아 핀테크위크 2020을 5월 28일에 온라인으로 개막하였습니다.

개막 당일에만 1만 5천여분이 온라인으로 방문해주셨고 5월 31일까지 방문자 수가 약 6만명에 달하는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핀테크·디지털금융의 발전전략을 함께 수립해 나가는 기회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제2회 코리아 핀테크위크 2020에는 지난해보다 3배 많은 150개 기업이 참여하여 온라인 전시·체험관을 통해 다양한 혁신적 서비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들이 코로나로 인한 언택트(Untact) 상황에서도 온택트* 플랫폼(Ontact Platform)을 구축해 새로운 사업 확장의 기회를 창출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 온라인을 통해 대면하는 방식

특히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개척을 위한 '디지털 뉴딜'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의 언택트 상황을
오히려 디지털 혁신의 도약 계기로 활용하고
혁신성장의 변곡점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3. 마무리말씀]

“재난에 맞설만한 수준의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알베르 카뮈(Albert Camus)의 소설 ‘페스트(La Peste)’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감염병으로 인하여 전세계 경제가 멈추고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위기가 도래하는 등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경제 전시상황 속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경제적 위기를 극복해야함은 물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준비를 동시에 해나가야 합니다.

정부는 정책적 상상력에 제한을 두지 않고
경제위기 극복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기존 발표한 대책들의 원활한 이행과 동시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금융혁신, 디지털 금융 지원대책들도
과감하고,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한 금융기관에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